

## 청소년의 교복행동과 외모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

한미화 · 이은희\*

진포중학교 ·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

### A Study Related to Adolescent Students' School Uniform Behavior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Han, Mi-Hwa · Lee, Eun-Hee\*

*Jin Po Middle School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vity between school uniform behavior(especially attitude toward school uniform, school uniform satisfaction, school uniform alteration)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in the adolescence. From November to December in 2007, 898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four schools in Jeollabuk-do Province were analyzed and the influence of relevant variables was understood to gather basic information about the fashion life in the adolescence. This study used SPSS 11.5 for Windows Program to conduct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hi^2$ -test,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factors to the response attitude toward uniforms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clothing attitude emerged four dimensions(fashion, symbolism, cleanliness, alternation), three dimensions(needs · value · conformity toward appearance). In attitude toward uniform, female students were more actively altering their uniforms than male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were more sensitive to trends than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aware of the cleanliness and alteration of uniforms. Overall, most students were not very satisfied with their uniforms (design, color, texture). When students'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female students were more aware of desire, value, and conformity in appearances than male students.

---

1) 교신저자: Lee Eun-Hee, 344-2 Sinyong-dong Iksan Jeonbuk 570-749 The Republic of Korea.

Tel: 063-850-6589 E-mail: ehlee@wonkwang.ac.kr

2) 본 논문은 2008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3) 본 연구는 2008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시행되었음.

By age, it was found that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aware than middle school students. Also, students receiving KRW 30,000 or more for monthly allowance were more aware than others who receive a lower amount between KRW 10,000 and KRW 20,000. Therefore, most students(62.1%) have experiences in altering uniforms. Especially, more female students and more high school students had such experiences. Uniform alteration is more related to attitude to appearance. In other words, students who choose to alter their uniforms are highly aware of desire, value, and conformity toward appearance. Students who are satisfied with all factors regarding attitude toward uniform, except for alteration, did not alter their uniforms that much. In addition, when the relativity between students' attitude toward appearance with uniform was considered, students that are not very satisfied with their uniforms were more aware of desire, value, and conformity toward appearance.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students'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school uniform behavior are closely related and their interests in appearance lead to alteration of uniforms, the clothing in which they spend most time of the day. From now on, students' opinions shall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or designing school uniforms.

**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교복행동(Behavior of School Uniform), 외모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ppearance)

## I. 서론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그 사람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등을 판단하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완하고 과시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장을 하거나 의복과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장하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며 심지어는 취약한 신체부위를 성형하기도 한다. 이렇듯 의복은 개인의 외모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된다(전경란, 2002; Roach-Higgins와 Eicher와 Johnson, 1995). 청소년기는 사회적 인정의 요인으로 추상적인 견해보다는 외모, 의복, 소유물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모의 매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기 외모관심은 자기 존재 표현, 성인 모방, 성적 매력 의식, 친구와의 동조 의식 등의 심리적 배경이 있으며(Ryan, 1966; 전정재, 1998; 이명희, 2003),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 또는 신체적인 불균형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의복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인다. 청소년기는 특히 자신의 외모를 사회와 연결시켜 의복을 착용하므로 외

모에 대한 만족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애란·김양진, 1996; MacGillivray와 Wilson, 1997).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은 의복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의복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막고 의복을 통일하고 착용자 자신이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이애경, 2006). 하지만 오늘날에는 의복의 패션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금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안정을 이룬 이후의 세대로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 소비 지향적이고 과거의 억압적인 생활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색상과 디자인 면에서 획일화된 교복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있으면서 의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자,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도록 하는 교복변형 행동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이혜경, 2000; 정혜원·정인순, 2005). 교복에 대한 불만을 해

소하고 또래집단의 유행을 따르기 위한 교복변형은 현재 모든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부분의 학교는 과도한 교복변형에 대해 다양한 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교복을 지나치게 몸에 밀착하거나 축소확대 변형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기에 외모에 대한 불만족에서 기인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는 자신의 외모에 대부분 불만족하고 있으며, 신체적 외모와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 할수록 신체의 결함이나 불만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을 통해 이상적 신체모습과 개성·자기표현의 혜택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진·강혜원, 1996; 심정은·고애란, 1997; 조선명, 1999). 따라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소년기 건전한 외모관리를 위한 하나의 지침을 마련한다는 뜻에서도, 또한 최근 국제교육명품도시 비전을 내세운 전라북도 군산시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기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행동을 외모에 대한 태도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사회발달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여겨지는 청소년기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행동(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만족도, 교복변형)을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 등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청소년기 의생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복행동

교복은 학생신분과 소속감,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스타일, 의복재료, 색채를 통일시키며, 각 학교에 맞는 상징성과 신분에 맞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디자인하는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의 역할을 한다. 1982년에는 교복 자

율화 정책을 시행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자유복을 착용하게끔 하였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어렵고, 사치성 조장과 학부모에게 의복비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소득계층이 가시화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빈부 격차로 인하여 생기는 심리적 위축감을 줄여주거나 등교 전에 의복 선택 시간의 낭비를 막고, 의복 구입비 마련을 위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Behling, 1995). 또한 오늘날 교복의 기능은 소속감과 함께 심미성이나 기능성을 더 고려하게 되었다(이태리, 2007; 전재명, 2006). 하지만 교복이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재 교복은 편안함보다는 불편한 의복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심미성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고 편안하지 못할 경우 교복에 대한 불만이 클 것이며, 나아가 학교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다(박영애, 1998). 교복에 대한 불만족은 교복을 변형하여 입으려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유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복에 관한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교복의 활동성, 맞음새 및 미적측면에 대하여 불만족하며 이러한 불만족으로 인해 교복을 변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경자·김용숙(1995)의 연구에서는 교복이 청소년의 개성이나 미적 감각을 키우기 어렵고, 활동성이 낮으며 추위나 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성능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의복이 더욱 개성화되고,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이 개발되면서 교복의 색상과 무늬, 디자인이 다양해졌다. 현재 교복이 가지는 제복의 특성상 개성, 유행과 같은 청소년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의복과는 달리 청소년이 선호하는 이미지와 개성에 따른 교복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Hamilton(1998)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교복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변화를 준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집단의 유행을 따르기 위한 교복변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몸에 지나치게 밀착되는 형태로 교복 변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도 교복변형은 교복

을 단순히 유니폼이라는 의미를 넘어, 청소년들이 하루의 절반정도를 착용하고 있는 하나의 의복으로 인식할 때 교복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정혜경·김세희(2004)의 연구에서는 교복의 착용범위와 확대는 교복변형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활동, 학업과는 관련성이 적으나 오락과 쇼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교복도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게 변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변형에 대해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명희·송은영(2002)의 연구에서는 교복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여자 중·고등학생들은 교복변형은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개성적이고 현대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윤현정(2002)은 교복이 기성복의 유행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행하는 신세대 스타일은 허리가 피트한 짧은 재킷과 청바지, 또 어깨와 허리가 꼭 맞는 가죽재킷, 블랙레깅스나 1cm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몸에 완벽하게 달라붙는 스키니 팬츠나 스커트가 인기 있고, 몸매를 드러내는 피트한 디자인의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하였다. 교복변형은 교복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고등학교의 복장규정에 교복변형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교복변형을 적발당하면 학생들에게 처벌이 가해지며 이는 결국 자아개념의 손상, 교사들로부터의 신뢰감 손상 등 부정적 교육효과를 야기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중앙일보, 2001). 또한 정혜경·김세희(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교복변형에 대한 변형을 인정하는 비율이(76.3%)가 반대하는 입장(23.0%)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가 학생들의 교복변형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은 교복행동에서 교복변형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 교복 변형의 경험이 있는 여고생은 82.3%, 이혜경(2000)의 연구에서는 1년간 교복을 변형한 응답자가 52.7%,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64.9%, 권숙희·김혜정(200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여고생의 67.3%, 마산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정혜경과 김세희(2004)의 연구에서는 52.6%가 교복을 변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변

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박정희(1998)의 연구에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바느질한 곳이 뜯어져서’, ‘유행에 맞게 입려고’의 순이며, 이혜경(2000)의 연구에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수가 맞지 않아서’, ‘유행’의 순이었고,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자기 체형에 맞게 고치면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므로’, ‘교복이 너무 크게 나와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길이가 너무 길어서’의 순으로 교복변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복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스커트 길이며 스커트 폭과 재킷의 품과 길이를 줄이는 것도 비교적 많은 수가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교복변형은 전반적으로 몸에 밀착된 형태로 교복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권숙희·김혜정(2002)의 연구에서 조사대상 여고생들은 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교복변형의 중요한 원인이었고, 이것은 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황진숙·안명화·유유진·유승연(2003)의 연구에서는 교복이미지로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교복변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교복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남학생은 상의품과 바지통을 줄였으며, 여학생은 상의품을 좁고, 상의소매를 짧게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교복변형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날씬하고 키를 커 보이게 하는 교복변형이 많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교복행동에서 교복변형 현상이 보편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을 하나의 비행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와 독립 지향적인 가치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의견을 자신 있게 주장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종수, 1995). 이러한 점으로 고려해볼 때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이 단순히 비행 및 반항적 행동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표현방식이라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복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단서로 사용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체격, 얼굴모습, 의복, 화장, 안경과 같은 액세서리,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다(Freedman, 1984; 황인정, 1993). 외모에 관한 선행연구(Berscheid, 1981; Adams, 1982; Patzer, 1985; Hatfield와 Sprecher, 1986; Alley와 Hildebrandt, 1988)를 살펴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게 현대사회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모는 사회적 고정관념의 유력한 원천이며, 한 개인의 신체적 매력은 타인에 의해 사회적 평가의 기초로써 사용되는 사회적 단서가 된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외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은 젊고 날씬한 서구화된 모습으로 이상적인 마른 신체 이미지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됨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과 신체 이미지는 영향을 크게 받으며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청소년기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조선명·고애란, 2001).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가 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매력적인 외모를 위한 외모 관리 행태가 의복태도와 관련지어 나타난다. 외모가 자기구축과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Stuart와 Sundeen, 1995; Kaiser, 1990).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로 외모와 신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사회성이 발달하여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감정은 자아에 대한 감정과 일치하는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감에 따라 자신감이 생기거나 반대로 위축감이 생긴다. 이러한 신체만족도는 신체의 기능과 외모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의복행동에 반영될 수 있다(구자명·이명희, 1994; Richards, 1990). 또한 청소년기의 외모관련행동은 실질적이기보다는 감각 지향적이므로 외모의 멋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의복과 패션에 대해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난다(이은희, 2000). Lennon와 Rudd와 Sloan와 Kim 등(1999)은 외모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개개인은 사회적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전

략을 구상하게 된다고 하였다. 신체와 의복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이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모는 신체이미지와 착용된 의복의 특성에 의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신체와 의복에 의해 구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Horn와 Gural, 1981; 심정은·고애란, 1997).

청소년기는 외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매력적인 외모를 위한 외모 관리를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볼 수가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의복을 통하여 타인의 반응을 고려하고 자신의 신체매력을 과시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높은 의복관심과 또래집단의 의복동조, 연예인에 대한 외모 모방과 유행에의 몰입 등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되어 간다(이인자·이경희·신효정, 2001).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청소년들은 신체성장이 자기와 비슷한 연령이나 같은 지위에 있는 동년배들과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며, 그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외모관리나 의복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동년배집단과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청소년 전기의 청소년들이 후기의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느끼며 이러한 불만은 또래관계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orn와 Gurel, 1981). 청소년기의 신체만족도와 신체매력성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낮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마른 체형을 지향하였다(정재은·이순원, 1993; 구정화, 1994; Cash, T.와 Winstead, B.와 Janda, L., 1986). 이것은 여학생들이 청년기 초기에 남학생보다 갑작스런 체중 증가 등의 많은 신체변화를 겪게 되어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아지며, 또한 자신의 신체를 덜 매력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심정은·고애란, 1997).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날씬한 몸매가 가장 필요하며 다음으로 세련된 옷차림을 들었다. 또한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큰 키가 가장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는 남녀 모두 사회계층이나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구자경·이명희, 199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김정애, 2001). 최윤정과 김미숙(1997)의 연구에서 여고생들은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스타일에서 연예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동일화하려는 하였다. 조선명(1999)은 청소년기 여학생은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 열중,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황진숙·나영주·이은희·고선주(2005)의 연구에서는 가족 및 학교에 불만인 집단이 부정적인 신체이미지 성향을 가지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많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가 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매력적인 외모를 위한 외모관리 행태가 교복행동과 관련지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기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첫째, 청소년의 교복행동을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도, 교복변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교복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조사하고,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와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교복변형은 교복변형경험여부, 교복변형실태, 교복변형 중요요인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변형경험과 교복변형 중요요인의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외모에 대한 욕구·가치·동조 의식으로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셋째, 청소년의 교복행동과 외모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복변형유무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만족도의 차이와 교복에 대한 태도와 외모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4개교의 남녀 중·고등학생이며, 표본추출방법은 단순무작위추출 방법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로서, 남녀 중·고등학생 각각 30명을 임의로 표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는 총 1,00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질문지중 불성실한 것을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898부를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학생 438명 48.8%, 여학생 460명 51.2%, 중학생 491명 54.7%, 고등학생 407명 45.3%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아버지 52.4%, 어머니 65.3%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직업에서 아버지의 직업은 기술직이 29.4%로 가장 많았고, 사무·행정직 26.9%, 농업 및 생산직 12.0%, 서비스직 10.6%, 판매직 9.8%, 전문직 5.7%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취업주부가 51.4%로 전업주부 48.6%보다 많았고, 취업한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서비스직이 13.5%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에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가정이 41.6%로 가장 많았고, 한달 용돈은 3만원에서 5만원 이하인 학생이 48.0%,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 의복을 구입하는 청소년이 37.2%로 가장 많았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교복행동(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도, 교복변형)과 외모에 대한 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복행동에서 교복에 대한 태도 조사를 위한 문항은 김미영

· 이은영(1991)의 의복평가기준과 김순화(1992)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다. 교복만족도와 교복변형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이혜경, 2000; 이에경, 2006; 박효은, 2007; 이태리, 2007)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측정방법은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교복변형은 교복변

형 경험 여부, 교복변형에 대한 실태, 교복변형 중요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외모에 대한 태도는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 et al.(1995)이 개발한 문항(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과 이은희(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급별, 부모학력과 직업, 가정의 월수입, 한 달 용돈, 평균 의복구입 횟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 교복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요 인	요인부하량
<p><b>&lt;요인 1&gt; 유행성</b></p> <p>우리학교 교복 디자인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78                      우리학교 교복 디자인은 청소년의 유행 감각에 맞는다. .76                      우리학교 교복색상이 유행하는 색상이라서 마음에 든다. .71                      교복이 유행 디자인이라서 다른 학교 교복보다 마음에 든다. .66</p> <p>변량(%)=24.94    고유치=3.99    α=.86</p>	
<p><b>&lt;요인 2&gt; 상징성</b></p> <p>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 신분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한다. .72                      교복을 입으면 소속감이 생기고,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더 편하다. .68                      교복을 입으면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56                      교복을 입으면 단정해 보인다. .54                      우리학교 교복을 입는 것이 자랑스럽다. .50</p> <p>변량(%)=10.00    고유치=1.60    α=.77</p>	
<p><b>&lt;요인 3&gt; 관리성</b></p> <p>우리학교 교복은 구김이 잘 가지 않아 다림질할 필요가 없다. .65                      우리학교 교복은 얼룩이나 때가 쉽게 타지 않는다. .62                      우리학교 교복은 여러 번 세탁해도 옷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62                      우리학교 교복은 세탁하기가 쉽다. .50</p> <p>변량(%)=8.68    고유치=1.39    α=.70</p>	
<p><b>&lt;요인 4&gt; 변형성</b></p> <p>교복을 나만의 감각을 연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변형하고 싶다. .82                      요즘 유행하는 교복 스타일로 변형하고 싶다. .80                      우리학교 교복의 크기를 몸에 적당하도록 변형하고 싶다. .50</p> <p>변량(%)=7.00    고유치=1.12    α=.62</p>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1.5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복에 대한 태도와 외모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행동과 외모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 t-test, 일원변량분석과(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교복행동과 외모에 대한 태도와외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복행동

1) 교복에 대한 태도

청소년의 교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복에 대한 태도 25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9개 문항이 제외되고, 4개 요인의 16개 문항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

(n=898)

구 분		유행성	상징성	관리성	변형성
성별	남(n=438)	2.23	2.73	2.70	2.87
	여(n=460)	2.30	2.78	2.69	3.12
	t-value	-1.42	-1.14	.492	-5.71***
학교 급별	중학교(n=491)	2.36	2.74	2.66	2.95
	고등학교(n=407)	2.15	2.78	2.74	3.04
	t-value	4.24***	-.90	-1.94*	-2.00**
가정의 월수입	100-200만원미만(n=217)	2.32	2.83 <sup>a</sup>	2.68	2.87 <sup>b</sup>
	200-300만원미만(n=374)	2.29	2.76 <sup>ab</sup>	2.74	2.98 <sup>b</sup>
	300만원이상(n=307)	2.20	2.71 <sup>b</sup>	2.65	3.10 <sup>a</sup>
	F-value	2.36	2.13*	1.63	7.75***
한달 용돈	1~2만원이하(n=287)	2.34	2.80	2.72	2.86 <sup>b</sup>
	3~5만원미만(n=431)	2.23	2.72	2.71	3.03 <sup>a</sup>
	5만원이상(n=180)	2.22	2.76	2.64	3.12 <sup>a</sup>
	F-value	2.28	1.12	1.03	10.15***
의복 구입 횟수	1개월 한번이상(n=127)	2.10 <sup>b</sup>	2.65	2.60	3.12 <sup>a</sup>
	1-2개월에 한번(n=276)	2.23 <sup>ab</sup>	2.75	2.69	3.08 <sup>a</sup>
	3-6개월에 한번(n=334)	2.32 <sup>a</sup>	2.81	2.74	2.95 <sup>b</sup>
	1년에 한번미만(n=161)	2.36 <sup>a</sup>	2.74	2.69	2.84 <sup>b</sup>
	F-value	3.64**	1.63	1.40	7.00***

\* p<.05, \*\* p<.01, \*\*\* p<.0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05)



이 선택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4개 요인은 교복에 대한 태도에 대해 총 50.62%의 설명 변량을 지닌다.

<요인 1>은 특정시기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 들여지고 채택되는 의복스타일과 교복의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한 유행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66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3.99이고 변량은 24.94%이었다. <요인 2>는 교복을 입으면 나타나는 신분의 표현이나 소속감 등의 상징성에 대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0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60이고 변량은 10.00%이었다. <요인 3>은 교복의 손질, 유지 등 관리의 편리성과, 세탁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0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39이고 변량은 8.68%이었다. <요인 4>는 교복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어 입는 변형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0이상이고 모두 3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12이고 변량은 7.00%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교복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교복에 대한 태도 변인 중 변형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변형성이 높았다( $p<.001$ ). 학교급별에 따라서는 교복에 대한 태도변인 중 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행성( $p<.001$ )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고, 관리성( $p<.05$ )과 변형성( $p<.05$ )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교복에 대한 태도 점수가 대부분 3점 이하로 매우 낮아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평가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의 월수입이 많은 학생일수록 교복에 대한 태도 중 상징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p<.05$ ), 가정의 월수입( $p<.001$ ),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교복에 대한 태도 중 변형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p<.001$ ). 또한 의복구입 횟수가 많을수록 교복에 대한 태도 중 유행성( $p<.01$ )을 낮게 평가한 데 비해 변형성( $p<.001$ )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만족도 차이

(n=898)

구 분		디자인	색상	옷감	전체
성별	남(n=438)	2.40	2.49	2.62	2.50
	여(n=460)	2.68	2.73	2.77	2.93
	t-value	-4.07***	-3.36***	-2.09*	-3.70***
학교 급별	중학교(n=491)	2.63	2.72	2.83	2.73
	고등학교(n=407)	2.45	2.47	2.54	2.49
	t-value	2.52**	3.44***	4.14***	3.94***
가정의 월수입	100-200만원미만(n=217)	2.66 <sup>a</sup>	2.76 <sup>a</sup>	2.72	2.71 <sup>a</sup>
	200-300만원미만(n=374)	2.59 <sup>ab</sup>	2.63 <sup>ab</sup>	2.73	2.65 <sup>ab</sup>
	300만원이상(n=307)	2.42 <sup>b</sup>	2.48 <sup>b</sup>	2.64	2.51 <sup>b</sup>
	F-value	3.92*	4.526**	.679	3.57*
한달 용돈	1~2만원이하(n=287)	2.60 <sup>a</sup>	2.67	2.83 <sup>a</sup>	2.70 <sup>a</sup>
	3~5만원미만(n=431)	2.58 <sup>a</sup>	2.61	2.64 <sup>b</sup>	2.61 <sup>ab</sup>
	5만원이상(n=180)	2.38 <sup>b</sup>	2.51	2.64 <sup>b</sup>	2.51 <sup>b</sup>
	F-value	2.80*	1.28	3.13*	2.48*
의복 구입 횟수	1개월 한번이상(n=127)	2.35 <sup>b</sup>	2.42 <sup>b</sup>	2.54 <sup>b</sup>	2.44 <sup>b</sup>
	1-2개월에 한번(n=276)	2.49 <sup>ab</sup>	2.79 <sup>a</sup>	2.75 <sup>ab</sup>	2.63 <sup>ab</sup>
	3-6개월에 한번(n=334)	2.51 <sup>ab</sup>	2.57 <sup>ab</sup>	2.80 <sup>a</sup>	2.52 <sup>bc</sup>
	1년에 한번미만(n=161)	2.70 <sup>a</sup>	2.53 <sup>b</sup>	2.53 <sup>b</sup>	2.75 <sup>a</sup>
	F-value	3.80**	4.31**	3.43**	4.20**

\* p<.05, \*\* p<.01, \*\*\* p<.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05)

2) 교복만족도

현재 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3점 이하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옷감(평균 2.70), 색상(평균 2.61), 디자인(평균 2.55)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디자인(p<.001), 색상(p<.001), 옷감(p<.05)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교급별에 따라서는 디자인(p<.01), 색상(p<.001), 옷감(p<.001)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이 적은 학생일수록 교복의 디자인(p<.05)과 색상(p<.01)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한 달 용돈이 적을수록 교복의 디자인(p<.05)과 옷감(p<.05)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의복의 구입횟수가 적을수록 교복의 색상, 옷감, 디자인 만족도가 높았다(p<.01). 이와 같은 결과는 의복 구입횟수와 교복만족도는 상관이 없다고 한 이에경(2006)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3) 교복변형

(1) 교복변형경험 여부

조사대상 학생들의 교복변형 경험의 여부를 살펴 본 결과, ‘있다’가 558명으로 62.1%였으며, ‘없다’가 37.9%로 대부분의 학생이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이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것은 박효은(200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변형경험 여부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39.3%)이 남학생(22.8%)보다 교복변형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박혜선·김화순, 1998; 황진숙·안명화·유용진·유승연,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복변형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별에 따른 교복변형 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교복변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변형경험의 차이

(n=%)

구 분		있다	없다	합계	비고
성별	남	205(22.8)	233(25.9)	438( 48.8)	$\chi^2=85.46$ df = 1 p<.001
	여	353(39.3)	107(11.9)	460( 51.2)	
학교 급별	중학교	308(34.3)	183(20.4)	491( 54.7)	$\chi^2=.161$ df = 1 N.S.
	고등학교	250(27.8)	157(17.5)	407( 45.3)	
가정의 월수입	100~200만원 미만	118(13.1)	99(11.0)	217( 24.2)	$\chi^2=13.50$ df = 2 p<.001
	200~300만원 미만	226(25.2)	148(16.5)	374( 41.6)	
	300만원 이상	214(23.8)	93(10.4)	307( 34.2)	
한달 용돈	1~2만원 이하	137(15.3)	150(16.7)	287( 32.0)	$\chi^2=38.39$ df = 2 p<.001
	3~5만원 미만	291(32.4)	140(15.6)	431( 48.0)	
	5만원 이상	130(14.5)	50( 5.6)	180( 20.0)	
의복 구입 횟수	1개월 한 번이상	100(11.1)	27( 3.0)	127( 14.1)	$\chi^2=34.10$ df = 3 p<.001
	1~2개월 한 번	187(20.8)	89( 9.9)	276( 30.7)	
	3~6개월 한 번	193(21.5)	141(15.7)	334( 37.2)	
	1년에 한번 미만	78( 8.7)	83( 9.2)	161( 17.9)	
합 계		558(62.1)	340(37.9)	898(100.0)	

형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높다고 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월수입에 따른 차이에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청소년(25.2%)이, 한 달 용돈에 따른 차이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 미만인 청소년(32.4%)이 가장 교복변형 경험이 많았다( $p < .001$ ). 정혜원·정인순(200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학생들이 용돈이 많을수록 교복변형의 비율이 높다고 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의복구입 횟수에 따른 교복변형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21.5%),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20.8%), 1개월에 한 번 이상(11.1%)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한 달 용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또래와 어울리는 기회가 잦은 경우로 이 시기의 의복행동인 동조성을 중시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교복변형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의복비의 지출이 많은 경우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루 일과 중 오랜 시간 착용하는 교복을 맵시있게 입기를 위하여 변형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반대로 한 달 의복 구입횟수가 적은 학생일수록 교복변형을 하는 것은 의복에 대한 욕구충족 방법에 있어, 의복구입 횟수가 많을수록 사복(자유복)을 통해서, 의복구입 횟수가 적은 청소년은 교복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조사대상 학생들의 상당수가 교복변형을 하고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교복변형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정의 월수입과 한달 용돈, 의복구입 횟수 등의 변인이 교복변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2) 교복변형실태

조사대상 학생들의 교복변형에 대한 실태는 조사대상 청소년 중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집단(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교복변형실태

(n=558)

교복변형			n(%)
스커트 (바지)	길이	늘림	77 (13.8)
		줄임	265 (47.5)
	옆선	늘림	74 (13.3)
		줄임	78 (14.0)
	기타		11 ( 2.0)
	없음		53 ( 9.5)
블라우스 (셔츠)	길이	늘림	4 ( 0.7)
		줄임	425 (76.2)
	옆선	늘림	6 ( 1.1)
		줄임	116 (20.8)
	기타		7 ( 1.3)
	없음		0 ( 0)
조끼	길이	늘림	6 ( 1.1)
		줄임	166 (29.7)
	옆선	늘림	12 ( 2.2)
		줄임	227 (40.7)
	기타		11 ( 2.0)
	없음		136 (24.4)
재킷	길이	늘림	8 ( 1.4)
		줄임	315 (56.5)
	옆선	늘림	8 ( 1.4)
		줄임	206 (36.9)
	기타		5 ( 0.9)
	없음		16 ( 2.7)

교복변형을 한 청소년의 실태를 보면, 스커트(바지)를 변형한 청소년 중 스커트(바지) 길이를 줄인 학생이 265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옆선을 줄인 학생이 78명(14%)이었다. 이것은 이혜경(2000)의 연구에서 스커트에서 변형하는 곳은 옆선을 줄이는 것이 길이를 줄이는 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정혜경·김세희(2004)의 연구에서 상의에 비해 하의를 변형한 비율이 훨씬 높았고 스커트와 바지 길이를 짧게 하고 폭을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는 일치하였다. 블라우스(셔츠)를 변형한 청소년 중 대부분의 학생이 블라우스(셔츠)의 길이를 425명(76.2%) 줄였으며, 옆선을 줄인 학생이 116명(20.8%)이었다. 또한 조끼를 변형한 청소년 중 조끼의 옆

선을 줄인 학생은 227(40.7%), 길이를 줄인 학생은 166명(29.7%)이었다. 이것은 선행연구 이애경(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재킷을 변형한 청소년 중 재킷의 길이를 줄인 학생이 315(56.5%), 옆선(품)을 줄인 학생이 206(36.9%)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킷의 길이를 줄인 것은 선행연구(이혜경, 2000; 이애경, 2006)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외모를 돋보이기 위해 교복의 길이, 옆선 등 교복을 줄여서 몸에 밀착된 형태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선행연구(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황진숙·안명화·용유진·유승연, 2002) 결과와도 일치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교복의 미적 측면, 맞춤새에 불만족하여 교복변형을 하고 있으며 주로 스커트 길이, 재킷 품을 변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복변형의 중요요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학생들의 교복변형에 대한 실태

는 조사대상 청소년 중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집단(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교복변형을 하는 중요요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학생 모두에게 질문을 하였다. 이것은 교복변형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교복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변형의 중요요인의 차이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지적하는 교복변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체형보정’(29.8%), ‘유행’(26.7%), ‘활동성’(26.3%), ‘무난함’(17.1%)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혜경과 김세희(2005)의 연구에서 몸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날씬하게 보이고,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복을 변형한다는 결과와 다소 일치하였으나, 교복 디자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활동성’, ‘무난함’, ‘체형보정’, ‘유행’의 순으로 나타난 이애경(2006)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체형을 보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변형 중요요인의 차이

구 분		체형보정	유행	활동성	무난함	합계	비고
성별	남	77( 8.6)	130(14.5)	165(18.4)	66( 7.3)	438( 48.8)	$\chi^2=90.26$ df= 3 p<.001
	여	191(21.3)	110(12.2)	71( 7.9)	88( 9.8)	460( 51.2)	
학교 급별	중학교	149(16.6)	132(14.7)	143(15.9)	67( 7.5)	491( 54.7)	$\chi^2=11.19$ df=3 p<.01
	고등학교	119(13.3)	108(12.0)	93(10.4)	87( 9.7)	407( 45.3)	
가정의 월수입	100~200만원 미만	71( 7.9)	46( 5.1)	67( 7.5)	33( 3.7)	217( 24.2)	$\chi^2=12.01$ df=6 N.S.
	200~300만원 미만	117(13.0)	96(10.7)	98(10.9)	63( 7.0)	374( 41.6)	
	300만원 이상	74( 8.2)	98(10.9)	71( 7.9)	58( 6.5)	307( 34.2)	
한달 용돈	1~2만원 이하	85( 9.5)	59( 6.6)	100(11.1)	43( 4.8)	287( 32.0)	$\chi^2=34.48$ df=6 p<.001
	3~5만원 미만	126(14.0)	123(13.7)	114(12.7)	68( 7.6)	431( 48.0)	
	5만원 이상	57( 6.3)	58( 6.5)	22( 2.4)	43( 4.8)	180( 20.0)	
의복 구입 횟수	1개월 한 번이상	35( 3.9)	48( 5.3)	24( 2.7)	20( 2.2)	127( 14.1)	$\chi^2=19.45$ df=9 p<.05
	1~2개월 한 번	92(10.2)	68( 7.6)	64( 7.1)	53( 5.8)	276( 30.7)	
	3~6개월 한 번	101(11.2)	84( 9.4)	91(10.1)	58( 6.5)	334( 37.2)	
	1년에 한번 미만	40( 4.5)	40( 4.5)	57( 6.3)	24( 2.7)	161( 17.9)	
합 계		268(29.8)	240(26.7)	236(26.3)	154(17.1)	898(100.0)	

(n=%)

정하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였고, 남학생은 ‘활동성’에, 여학생은 ‘체형보정’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교복변형의 두 번째 요인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행’을 들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중학생들은 ‘활동성’을 가장 중요요인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체형보정’, ‘유행’, ‘무난함’ 순으로 나타났는데 비해서, 고등학생들은 ‘체형보정’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

고, 다음으로 ‘유행’, ‘활동성’, ‘무난함’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형보정’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p<.01$ ).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교복변형 중요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달 용돈에 따른 차이에서는 한달 용돈이 1~2만원 이하인 경우는 ‘활동성’, 3~5만원인 경우는 ‘체형보정’, 5만원 이상인 경우는 ‘유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1$ ). 다음으로 의복구입횟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의복구입횟수가 ‘1개월에 한 번 이상’인

〈표 7〉 외모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요 인	요인부하량
<b>&lt;요인 1&gt; 외모에 대한 동조</b>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똑같이 하고 싶다	.83
요즘 흔히 말하는 ‘뽀뽀’이나 ‘얼짱’인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74
나도 인기 모델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66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면 나도 똑같아지고 싶다	.65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외모와 비교한다	.65
인기있는 연예인들이 입은 옷을 될 수 있으면 구입한다	.53
나는 될 수 있으면 매력적인 외모의 이성친구와 사귀고 싶다	.53
TV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 닮고 싶은 내 이상형이 있다	.51
변량(%)=33.06    고유치=4.63 $\alpha=.85$	
<b>&lt;요인 2&gt; 외모에 대한 가치</b>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84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79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멋있고 예뻐야 가치가 있다	.79
남들에게 외모를 좋게 보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73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들은 보기 싫다고 여긴다	.57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를수록 옷맵시가 난다’고 생각한다	.51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 의복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50
변량(%)=9.79    고유치=1.37 $\alpha=.82$	
<b>&lt;요인 3&gt; 외모에 대한 욕구</b>	
나의 외모를 바꾸어 향상시켜야겠다고 자주 생각한다	.75
부모님의 허락 없이도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	.72
나이가 들어도 외모관리를 꾸준히 하고 싶다	.70
나는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 매력적인 외모를 하고 싶다	.63
나는 외모에 대해 신경을 자주 쓴다	.60
나는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5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외모관리를 하고 싶다	.52
변량(%)=7.43    고유치=1.06 $\alpha=.80$	

학생들은 ‘유행’을 교복변형의 중요 요인으로 들었고, ‘1~2개월에 한 번’, ‘3~6개월 한 번’인 학생들은 ‘체형보정’,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의복을 구입하는 학생들은 ‘활동성’을 교복변형의 중요 요인으로 들었다(p<.05).

## 2. 외모에 대한 태도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모에 대한 태도 3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치 1을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유치 1 이상의 요인이 3개이었으므로 3개의 요인을 선택하였다. 문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과 문항 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8개 문항을 제외한 22문항에 대한 제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3개 요인은 교복에 대한 태도에 대해 총 50.28%의 설명 변량을 지닌다.

<요인 1>은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외모와의 비교 내지는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어 타인의 외모를 따르려는 태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동조로 명명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51 이상이고 모두 8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4.63이고 설명력은 33.06%이며, 신뢰도는  $\alpha=.85$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우리 사회에서 외모에 대하여 갖는 시각에 관한 내용과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실제적인 시각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50 이상이고 모두 7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37이고 설명력은 9.79%이며, 신뢰도는  $\alpha=.82$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외모변화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의 차이

(n=898)

구 분		외모에 대한 동조	외모에 대한 가치	외모에 대한 욕구
성별	남(n=438)	2.98	3.09	2.96
	여(n=460)	3.08	3.33	3.26
	t-value	-2.35***	-5.97***	-8.07***
학교 급별	중학교(n=491)	2.92	3.05	3.03
	고등학교(n=407)	3.16	3.41	3.22
	t-value	-5.22***	-9.16***	-4.87***
가정의 월수입	100-200만원미만(n=217)	2.91 <sup>b</sup>	3.13 <sup>b</sup>	3.06 <sup>b</sup>
	200-300만원미만(n=374)	3.00 <sup>b</sup>	3.21 <sup>ab</sup>	3.09 <sup>b</sup>
	300만원이상(n=307)	3.15 <sup>a</sup>	3.29 <sup>a</sup>	3.19 <sup>a</sup>
	F-value	8.94***	4.23**	3.90**
한달 용돈	1~2만원이하(n=287)	2.91 <sup>b</sup>	3.08 <sup>c</sup>	2.98 <sup>b</sup>
	3~5만원미만(n=431)	3.07 <sup>a</sup>	3.25 <sup>b</sup>	3.16 <sup>a</sup>
	5만원이상(n=180)	3.12 <sup>a</sup>	3.35 <sup>a</sup>	3.22 <sup>a</sup>
	F-value	7.12***	13.79***	12.61***
의복 구입 횟수	1개월 한번이상(n=127)	3.10 <sup>a</sup>	3.36 <sup>a</sup>	3.29 <sup>a</sup>
	1-2개월에 한번(n=276)	3.04 <sup>ab</sup>	3.31 <sup>ab</sup>	3.18 <sup>ab</sup>
	3-6개월에 한번(n=334)	3.03 <sup>ab</sup>	3.19 <sup>b</sup>	3.09 <sup>b</sup>
	1년에 한번미만(n=161)	2.94 <sup>b</sup>	3.00 <sup>c</sup>	2.92 <sup>c</sup>
	F-value	10.39**	11.53**	11.35***

\* p<.05, \*\* p<.01, \*\*\* p<.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05)

계속적인 외모관리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욕구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52 이상이고 모두 7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06이고 설명력은 7.43%이며, 신뢰도는  $\alpha=.80$ 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외모에 대한 태도의 모든 변인에서  $p<.001$  수준의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은희(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학교급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 의식 모두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 살펴보면 가정의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일 때 외모에 대한 가치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에 따라 살펴보면 3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학생들이 1만원에서 2만원 이하로 용돈을 받는 학생들보다 외모에 대한 욕구, 가치의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1만원에서 2만원

이하로 용돈을 받는 학생보다 3만원 이상으로 용돈을 받는 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동조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의복구입 횟수에 따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욕구 의식은 1개월에 한번 이상 의복을 구입하는 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1년에 한번 미만의 의복구입을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가치와 동조 의식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 이상 의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1년에 한번 미만의 의복구입을 하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의 의식이 높을수록 의복구입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청소년의 교복행동과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의 관련성

조사대상 청소년의 교복변형유무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교복변형유무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외모에 대한 태도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교복변형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매력적인 외모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태도

<표 9> 교복변형유무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만족도의 차이

(n=898)

구 분	교복변형		t-value	
	유(n=558)	무(n=340)		
외모에 대한 태도	동조	3.15	2.70	6.91***
	가치	3.33	2.93	7.26***
	욕구	3.27	2.75	10.76***
교복에 대한 태도	유행성	2.21	2.34	-2.48*
	상징성	2.72	2.83	-2.30*
	관리성	2.66	2.76	-2.50*
	변형성	3.20	2.66	12.89***
교복만족도	디자인	2.49	2.64	-2.146*
	색상	2.51	2.77	-3.468***
	옷감	2.67	2.74	-.958

\*  $p<.05$ , \*\*  $p<.01$ , \*\*\*  $p<.001$

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복변형 유무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도 유행성·상징성·관리성(p<.05), 변형성(p<.001)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복변형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태도에서 변형성을 제외한 유행성, 상징성, 관리성에 높게 평가하였으며, 교복변형을 한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태도 중 변형성에서만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즉,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하여 유행하는 디자인이고, 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성으로 지니고 있으며, 세탁, 다림질 등이 편리하다고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교복변형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자신의 감각을 연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최근 유행하는 교복 스타일, 또는 몸에 적당하도록 변형하고 싶어하는 학생일수록 교복변형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복변형 유무에 따른 교복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복변형을 하지 않은 청소년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디자인과 색상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복에 대한 태도와 외모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교복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유행성은 외모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동조·가치·욕구 의식과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변형성은 외모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동조·가치·욕구 의식과 p<.01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유행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어 변형하고자 하는 학생일수록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매력적인 외모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복의 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도와 외모에 대한 태도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두고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교복의 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외모에 대한 태도인 동조·가치·욕구 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 의식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상황을 나타내는 비교기준이 되며, 하루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착용하고 있는 교복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외모의 평가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복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발달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여겨지는 청소년기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행동을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 등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청소년기 의생활

<표 10> 교복에 대한 태도와 외모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

(n=898)

구 분		외모에 대한 태도		
		동조	가치	욕구
교복에 대한 태도	유행성	-.171**	-.215**	-.233**
	상징성	.102	-.056	-.081*
	관리성	-.055	-.069	-.066
	변형성	.338**	.319**	.413**
교복만족도	디자인	-.136**	-.117**	-.129**
	색상	-.139**	-.089**	-.105**
	옷감	-.111**	-.130**	-.123**

\* p<.05, \*\* p<.01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전라북도 소재 4개교의 남녀 중·고등학생 8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SPSS 11.5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chi^2$ -검증,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남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변형을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만족도, 교복변형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청소년의 교복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결과, 유행성, 상징성, 관리성, 변형성 4개 요인이 선택되었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와 교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복에 대한 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복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변형하고자 하는 변형성이 높았다. 중학생이 교복에 대한 태도 중 유행성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교복에 대한 태도 중 관리성과 변형성에 높았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변형은 교복변형경험여부, 교복변형실태, 교복변형 중요요인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복변형경험과 교복변형 중요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복변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62.1%) 교복변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교복 변형 경험이 많았다. 교복변형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스커트(바지) 길이를 줄인 학생이 265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옆선을 줄인 학생이 78명(14%)이었다. 블라우스(셔츠)를 변형한 청소년 중 대부분의 학생이 블라우스(셔츠)의 길이를 425명(76.2%) 줄였으며, 옆선을 줄인 학생이 116명(20.8%)이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학생들은 스커트(바지)보다 블라우스(셔츠)의 길이와 옆선을 더 줄이고자 하였다. 재킷을 변형한 청소년 중 재킷의 길이를 줄인 학생이 315명(56.5%), 옆선(폼)을 줄인 학생이 206명(36.9%)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외모를 돋보이기 위해

교복의 길이, 옆선 등 교복을 줄여서 몸에 밀착된 형태로 변형시키고자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교복변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체형보정’, ‘유행’, ‘활동성’, ‘무난함’을 들었다.

둘째,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결과,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 3개 요인이 선택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동조·가치·욕구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상 일수록 동조·가치·욕구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학생들이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달 용돈을 3만원 이상 받는 학생들이 1만원에서 2만원 이하로 용돈을 받는 학생들보다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교복행동과 외모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복변형유무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만족도의 차이와 교복에 대한 태도와 외모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교복변형유무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만족도의 차이에서 교복변형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매력적인 외모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교복변형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태도 중 유행성, 상징성, 관리성에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으며, 교복변형을 한 학생들은 변형성에서만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교복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유행성은 외모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변형성은 외모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도와 외모에 대한 태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교복변형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매력적인 외모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태도 중 유행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변형성을 높게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매력적인 외모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계속적으로 외모관리를 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외모에 대하여 갖는 시각 또한 매력적인 외모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어 타인의 외모를 따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 의식은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접하는 교복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교복업체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복디자인과 제작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 의식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교복변형을 통해서 획일적인 교복에 대한 불만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와 교복업체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게 교복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교복디자인과 제작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가정교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교복행동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교복착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특정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지역과 학교를 더욱 확대하여 교복행동과 외모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의복태도와 외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외모와 교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고애란·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 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3, 31-41.

구자명, 이명희 (1994).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3.

구정화 (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성별, 학교 번인별, 가정번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 연구**, 19, 95-113.

권숙희, 김혜정 (2002).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변형에 따른 치수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c(4), 401-413.

김미영·이은영 (1991).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321-334.

김순화 (1992). **교복착용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진·강혜원 (1996).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11.

김정애 (2001).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도종수 (1995). 신세대의 특성 이해를 위한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20, 129-160.

박영애 (1998). **교복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희 (1998). **여고생의 교복 착용태도와 의복 행동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효은 (2007). **여자 고등학생 교복변형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태도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정은·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윤현정 (2002).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자·김용숙 (1995). 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7(2), 1-18.

이명희·송은영 (2002). 청소년의 자기이미지, 교복변형과 의복선호와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47-48.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 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 1101-1111.

이소은 (2001).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에경 (2006). **청소년의 의복관심도와 교복 만족도 및 교복**

- 변형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3).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2(2), 237-251.
- 이은희 (2007).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1-22.
- 이인자 · 이경희 · 신효정 (2001). **의상심리**. 서울:교문사.
- 이태리 (2007). **교복의 만족도와 변형에 대한 대중매체 영향에 관한 연구:중고등학교 여학생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0).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정재 (1998). **힘든 침대 어떻게 잘 넘길까?** 시공사.
- 전채령 (2006). **고등학생의 교복태도에 따른 교복변형 및 패션액세서리 착용 행동**.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 · 이순원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 정혜경 · 김세희 (2004).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 행동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마산 ·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1), 136-150.
- 정혜원 · 정인순 (2005).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평가와 교복 변형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179-186.
- 조선명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01. 2. 16). **교복변형 신체발달에 지장 줄 수도** (www.joins.com).
- 최윤정 · 김미숙 (1999). 유행 태도에 따른 여고생의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111-126.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0-R10.
- 황인정 (1993). **원아학부모·원장이 선호하는 유치원 교사의 체형과 이상적인 외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진숙 · 나영주 · 이은희 · 고선주 (2005). 가족과 학교 관련 요인에 따른 청소년 세분집단의 신체이미지와 자아 존중감. **한국의류학회지**, 29(7), 948-958.
- 황진숙 · 안명화 · 용유진 · 유승연 (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비교연구.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4(3), 243-247.
- Adams, G. R. (1982). Physical attractiveness. In A. G. Miller(Ed.), *In the eye of the beholder : Contemporary issues in stereotyping*. 253-304.
- Alley, T. R. & Hildebrandt, K. A. (1988).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facial aesthetics*. In T. R. Alley (Ed.), *social and applied aspects of perceiving faces*. 101-140. Hillsdale, NJ:Erlbaum, Benson, P. L., Karabenick, S. A., & Lerner, R. M. (1976). Pretty pleases :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and sex on receiv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409-415.
- Berscheid, E. (1981).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G. W. Lucker, K. A. Ribbens, & J. A. Mcnamara(Eds), *Psychological aspects of facial form*. 1-23. Ann Arbor, MI : Center for Human Growth.
- Behling, D. (1995). Influence of dress on perception of intelligence and scholastic achievement in urban schools with minority population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3(1). 11-16.
- Cash, T. F. & Winstead, B. A. & Janda, L. H. (1986). Body image survey report: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20, 30-44.
- Freedaman, R. J. (1984). Reflections on Beauty, as it Relates to Health in Adolescent Females. *Health Care of the Female Adolescently*, 9(2/3), 29-45.
- Hatfield, E. & Sprecher, S. (1986). *Mirror, mirror : The importance of looks in everyday lif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milton, W. L. (1998). *The school uniform as fashion statement: How students crack the dress code*. In

- Damhorst, M. L., K. A. Miller, & S. O. Michelman (Ed.). (1999). *The meaning of dress*. New York: Fairchild Pub., Inc. 232-35.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M.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orn, M. J. & Gurel, M. L. (1981).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MacGillivray, M. S, & Wilson, J. 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43-49.
- Richards, M. H. et al. (1990). Relations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lic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13-321.
- Roach-Higgins, M. E. Eicher J. B & Johnson, K. K. P. (1995).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tuart, G. W. & Sundeen, S. J. (1995).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5th ed.). Mosby.

###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7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전라북도 소재 4개교의 남녀 중고등학생 8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해 교복행동(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만족도, 교복변형)을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 등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청소년기 의생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SPSS 11.5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  $\chi^2$  검증,  $t$  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교복에 대한 태도는 유행성, 과시성, 관리성, 변형성 4개 요인이 선택되었다. 교복에 대한 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변형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며, 중학생이 교복에 대한 태도 중 유행성이 높았고, 관리성과 변형성에서는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교복착용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교복변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교복 변형 경험이 많았다. 교복변형실태에서 스커트(바지) 길이를 줄인 학생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외모를 돋보이기 위해 교복의 길이, 옆선 등 교복을 줄여서 몸에 밀착된 형태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복변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체형보정', '유행', '활동성', '무난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결과,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 3개 요인이 선택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욕구·가치·동조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상 일수록 욕구·가치·동조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학생들이 욕구와 동조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을 3만원 이상 받는 학생들이 1만원에서 2만원 이하로 용돈을 받는 학생들보다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교복변형유무에 따른 외모에 대한 태도,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만족도의 차이에서 교복변형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매력적인 외모에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교복변형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태도 중 유행성, 상징성, 관리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으며, 교복변형을 한 학생들은 변형성만에서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교복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유행성은 외모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변형성은 외모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디자인, 색상, 옷감에 대한 만족도와 외모에 대한 태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교복행동과 외모에 대한 태도는 관련이 있었으며, 청소년기 외모에 대한 관심은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이 접하는 교복행동 즉,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만족도, 교복변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10월 31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3월 10일